

碩士學位請求論文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指導教授 梁 淳 秘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康 文 裕

1990年度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康 文 裕

指導教授 梁 淳 珽

1990年 12月 日

康文裕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月 日

主審 _____ ①

副審 _____ ①

副審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4
1. 배경	4
2. 사실의 유형	10
3. 기능	20
4. 가창 형식	26
5. 주제	36
III. 결론	46
참고문헌	48
부록자료	51

I. 서 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민요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의 민요 수집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¹⁾ 특히 구비문학 관점에서 한국민요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40년대 고정옥의 「조선 민요 연구」²⁾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각 지역별, 분야별로 착실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수십년 동안 제주도 민요 연구에 심혈을 기울려 온 진성기 「남국의 민요」, 홍정표 「제주도 민요해설」,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 연구」³⁾가 발표됨으로써 제주도 민요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뒤이어 제주도에서는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제주도 민요의 여러 분야별로 몇몇 논문들이 발표되었다.⁴⁾ 이러한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민요의 총체적인 실상 파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속 문학중 인생의 최후를 장송하는 지고한 서정시라고한⁵⁾ 상여노래를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탄생하면서 죽음을 잉태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죽음도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의식요는 죽음을 표현하는 노래일 뿐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생자와 망자와의 관계속에서 형성·전승되어온 노래이므로 이러한 장례의식요는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전승되는 민요라고 볼 수 있다.

- 1) 嚴弼鎭, 「朝鮮童謠集」, 彰文社, 1924.
- 2)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 3) 秦聖麒, 「南國의 民謠」, 濟州島 民俗文化 研究所, 1958.
洪貞杓, 「濟州島 民謠解說」, 省文社, 1963.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 조약돌, 1983.
- 4) 邊聖久,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民謠論集」 民謠學會, 1988.
左惠景, 「濟州傳承童謠 研究」 「民謠論集」 民謠學會, 1988.
姜性均, 「제주도 김매는노래 연구」 「民謠論集」 民謠學會, 1988.
- 5) 奇老乙, 「韓國輓歌集(호남, 제주편)」, 청림출판, 1990, p.2.

따라서 장례의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분포되고 있는 민요의 한 유형이다. 물론 상여를 매고 장지로 향하면서 부르는 상여노래, 봉분을 쌓을 때 사용할 흙을 파면서 부르는 진토긋노래, 매장한 뒤에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노래를 총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장례의식은 망자의 장례의식 진행에 따라 가창되고 망자의 혼을 위무한다는 의식요이다. 그러나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면서, 흙을 파면서, 봉분을 쌓으면서 일꾼들이 노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불러진다는 점에서는 노동요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장례의식은 다른 민요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의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자료수집만 단편적으로 되어 있을 뿐 기초 연구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히 한 본토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⁶⁾ 이렇게 장례의식의 연구가 부진한 것은 망자와 관련된 의식요이므로 가창기연의 제한, 의식적인 가창기피현상—장례의식은 지금도 집안에서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이다. 이로 인하여 민요 연구 역시 자료수집이 용이한 노동요에 치중되어 왔다.

또한 가정의례준칙 제정과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장례의식요 자체의 존립에도 많은 우려가 되는 실정이어서 그 연구와 보전은 더욱 시급하다.

민요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장례의식요도 원초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탄생하

6) 金聖培, 「香頭歌·成造歌」, 正音社, 1975.

「韓國香頭歌 研究」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 論文集」 제9,10집, 東國大學校, 1975.

林憲道, 「香頭歌의 分段的考察」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제17집, 公州師範大學, 1979.

柳鍾穆, 「상여노래의 형식에 대하여」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5집, 동아대학교, 1982.

「한국 민간의식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박희선, 「韓國民謠 輓歌의 文學的 研究」 「한성어문학」 제2집, 한성대학, 1983.

奇老乙, 「韓國輓歌集(호남, 제주편)」, 청림출판,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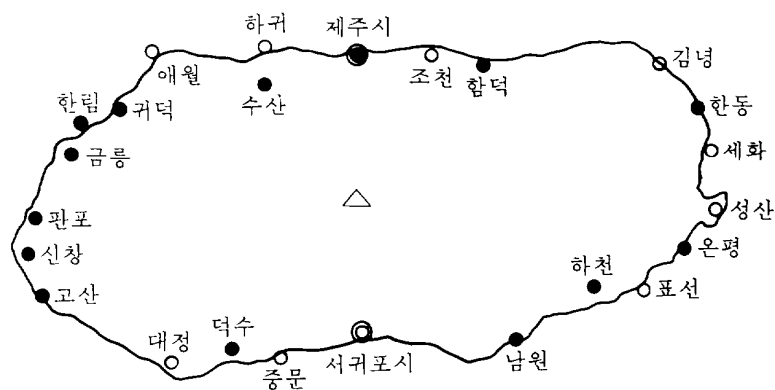
申璨均, 「輓歌의 韓·中·日 比較研究」 「比較民俗學」 比較民俗學會, 1990.

면서 죽음을 잉태한다고 할 수 있듯이 인간의 삶속에는 죽음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필자가 1986-1990년에 조사한 20편의 상여노래를 민속학, 문학적, 음악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주도 장례의식요 중에서도 특히 상여노래의 배경, 사설의 유형, 기능, 가창형식, 주제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민요는 사설, 기능, 가락을 갖춘 노래이므로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해야 이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설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가락의 측면에서도 보충하였다. 상여노래는 의식의 진행되면서 부르는 의식요이므로 의식절차의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지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는 실증적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부록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료조사지는 <도표1>과 같다.

<도표1>



II. 본 론

1. 배 경

장례의식요는 인간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노래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공존한다. 그러므로 장례의식요는 인간문화에 장례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불려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시적 사고로선 죽음이나 탄생이나 성년은 각각 죽음과 부활의 관계로서 순환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죽음은 동시에 젊은이로서의 탄생이라고 믿어져 왔던 것이다.⁷⁾ 기록에 의하면 『隋書高句麗傳』에 장례의식요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이 전한다.⁸⁾

“居父母乃夫之喪服皆三年。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윗글에서 “葬則鼓舞作樂”이 장례의식요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던 판소리 가운데 「배비장전」에 나오는 향두 타령조의 향두가, 「申在孝本 興甫歌」를 통해 葬送歌舞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다.⁹⁾

1) 장례절차

장례의식에 대한 모든 준비는 상주들에 의해서 마련된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7) 西郷信綱, 『詩の發生』, 未來社, 1978, p.250.

8) 申瓚均, 「輓歌의 韓·中·日 比較研究」 『比較民俗學』 제6호, 比較民俗學會, 1990, p.48.

9) 金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p.3.3.

사람들은 스스로 관, 밧자리(산터) 등을 준비한다고 한다. 관혼상제의 풍속은 가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도에서 행해지는 장례의식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ㄱ) 임종-ㄴ) 초혼-ㄷ) 염습-ㄹ) 조관-ㅁ) 입관-ㅂ) 출구-ㅅ) 발인-ㅇ) 운상-ㅈ) 하관-ㅊ) 성분-ㅋ) 귀양풀이

이렇게 장례의식이 행해지면서 운상, 성분¹⁰⁾ 귀양풀이등의 절차에는 노래가 수반된다.

ㄱ) 임종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보통 망자의 자식들이 지키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임종을 못지킨 것이 불효에서도 가장 큰 불효가 된다고 이른다. 물론 친구나 이웃사람들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망자는 이 자리에서 유언을 하기도 한다. 망자가 눈이 안 감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이 눈을 쓸며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ㄴ) 초혼

망자가 늘 입던 옷을 찾아내어 屍身위에 덮어 두었다가 지붕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서서 북쪽을 향하여 “○○○公○○訓長○○復”이라 세번 외친다. 초혼을 하는 사람은 큰 상주가 하는데 큰 상주가 없으면 그 집안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한다. 이 때 사용했던 옷은 시신위에 덮어 두었다가 매장시에 같이 묻는다. 만약 그 마을

10) 예혜 달구

예혜 불쌍달구로다

요상형세를 바라보니

좌청룡 우백호에

예혜 달구

상응하니 대과급제라

……〈중략〉 (필자채록: 한림읍 귀덕리 홍춘송, 남·79세)

에 홍역이 유행할 경우에는 초흔을 중지해 두었다가 장지에 가서 초흔하는게 상례로 되어있다.¹¹⁾

ㄷ) 염습

香湯을 큰 그릇에 떠서 시신을 깨끗이 씻는다. 상주는 망자의 입에 얼마량의 쌀을 넣어 주든지 쌀로 만든 떡 9개를 양손과 가슴에 각각 놓는다. 이것들은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 데 사용할 양식이라고 믿고 있다. 호상옷을 입힌 뒤 검은 호상을 입히고 “두름포(배12척)”로 시신을 감은 뒤 7묶음으로 묶는다. 호상옷을 바느질 할 때는 끝매듭은 맺지 않는다. 손에는 명주로 만든 장갑을 끼운다. 또한 “소량(혹은 대량)”이라고 창호지로 주머니를 자그맣게 5개 만들어 망자의 머리털을 몇개 잘라 넣고는 머리쪽에 넣고 左足, 右足, 左手, 右手의 발톱, 손톱을 따로따로 깎아 담고는 각각 그곳에 넣는다. 혹은 머리털이나 발톱, 손톱을 깎아 넣는 일 없이 주머니만을 만들어 각각 머리와 양손과 발에 넣기도 하며, 단지 주머니 2개를 만들어 左足, 左手의 발톱, 손톱을 넣은 것을 왼쪽허리에, 右足, 右手의 발톱, 손톱을 넣은 것을 오른쪽 허리에 달아메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소량”을 생략하는 지방도 있다.¹²⁾

ㄹ) 조관

관은 상가에서 부탁한 목수가 상가의 마당에서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관의 재료는 보통 소나무인데 상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굴목이(느티나무) 등 다른 재료도 사용한다.

옛날에는 관 안을 모두 창호지로 도배하고 밑널 안쪽에는 칠성 그림을 직접 파 그렸다. 지금은 보통 밑널 안쪽에 도배하는 창호지에 칠성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칠성그림을 대신하는게 보통이다.

11) 김영돈, 「제주도민의 통과의례」 「한국민속 연구선 I」, 일조각, 1982, p.293.

12) 「앞의 책」 p.293.

ㄴ) 입관

수위나 상복을 지을 때 만들어 둔 천금(天衾)과 지금(地衾)을 명주로 지어 두었다가 입관시 지금은 시신밑에 깔고 천금은 시신위에 덮는다. 천금과 지금속에는 각각 실태면자(雪綿子)를 넣는다.¹³⁾ 이렇게 입관이 된 뒤 이 빈곳은 망자의 옷이나 형겅으로 모두 채운다. 옛날에는 벗짚을 잘게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시신의 베개는 보통 배로 만들었으며 그 속에는 모래나 흙을 넣기도 하였다.

ㄷ) 출구

장례를 주관하는 친족대표가 축문을 읽으면 출구를 맡은 사람들이 관을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한 후 출구가 시작된다. 이 때 예전엔 문이 삼살방일 경우면 삼살방이 아닌 벽을 뜯어서 출구했었다는 지방도 있다.¹⁴⁾ 그리고 출구시 관에 덮어져 있는 이불은 반듯하게 덮지 않고 좀 비스듬하게 해야 하고, 관을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금기사항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ㄹ) 발인

발인시에는 간단하게 마당에서 발인제를 지내는 것이 보통인데 운상을 시작하는 대로에서 상여에 관을 얹은 다음 발인제를 지내는 마을도 있다. 상여는 상여계가 있어서 계원들에 의해서 지은 상여막에 보관되는 것이 보통이다. 계원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한다.

ㅇ) 운상

상가(喪家)에서 묘지로 상여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묘지는

13) 「앞의 책」 .p.295.

14) 「앞의 책」 .p.296.

보통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원거리를 상여를 메고 간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묘지로 향하는데 보통 마을을 벗어나면 선창자의 노래에 맞추어 상여꾼들과 조문객들의 후렴으로 상여 노래를 부른다.

이런 형식으로 망자의 생애와 가족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 등을 제재로 상여노래가 불려진다. 장의행렬 순서는 붉은 비단으로 된 명전을 선두로 魂魄床(고인의 사진, 魂魄床은 보통 여상주가 드는 게 상례다), 다음에 輓章이 뒤따르고 “설베”가 양옆으로 늘어선다. “설베”의 원래의 기능은 험한 산으로 상여를 올려갈 때 상여를 잡아당기는 베였으나 지금은 흔히 광목을 상여 앞좌우로 길게 놓을 뿐 원래의 기능은 거의 없어진 실정이다. 다음에는 상여, 상여다음으로는 상제들과 복천, 그리고 고인의 친지들과 조문객들이 뒤 따른다.¹⁵⁾ 부인들은 상여노래의 후렴을 부르면서 따라가다가 묘지가 원거리면 중도에서 귀가하기도 한다. 상여가 묘지로 가는 도중 가끔 쉬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상주들이 상여꾼들을 극진히 모신다. 그렇지 않으면 상여꾼이 상여를 정성스럽게 묘지로 옮기지 않은 풍속이 있기 때문이다.

×) 하관

관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뜻한다. 하관할 시간이 되면 방위에 맞추어 정성껏 관의 평형을 유지시키면서 하관이 시작되고 하관 후 하관식을 지낸다. 하관식 관에 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금기 때문에 상주들은 돌을 철저히 골라낸다. 관 외에 개관을 덮는다. 개관은 보통 나무인데 이제는 대리석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관이 끝나면 상주들이 조문객과 상여꾼들에게 술진을 권하면서 봉분을 만들 작업을 특별히 부탁한다.

×) 성분

봉분을 쌓는 일을 말한다. 본도는 박토이어서 봉토를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5) 『앞의 책』, p.297.

그래서 상여꾼들이 중심이 되어 노래를 부르면서 봉토를 파서 거래로 떠 올린다. 이때 진토긋 노래가 불려진다. 그리고 봉분이 반쯤 되었을 때 달구질 소리를 하면서 봉분을 잘 다졌다. 봉분을 잘 다져야 튼튼하게 만들어 지어 망자가 천년만년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상주들은 정성스럽게 이 일을 했고, 달구질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탁을 하기도 한다. 망자는 개판이 썩어서 무너지는 소리로 놀라고, 개판이 무너지므로 봉분의 흙이 아래로 떨어질 때 놀래서 두번 놀랜다는 것이다. 망자가 놀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 그러므로 봉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봉토에 석회를 섞어 사용하는 마을도 있다.

ㄱ) 귀양풀이

장례 치른 날 저녁 망자의 영혼을 慰撫하고 저승길로 잘 인도해 주도록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는데 이를 “귀양풀이”라 한다. 무당 한 분이 빈소였던 방 앞마루에 앉아 “체사본풀이”를 念誦하는데 이 때 소요되는 巫具는 장구 한 개가 보통이다.

빈소였던 방에 간단히 設床하고 설상한 곳을 향해 “체사본풀이”를 다 演송하고 나면 逐邪儀禮로 콩을 뿌리는 것으로써 마친다. 이렇게 그날 저녁 4~5시간 정도의 간단한 기원은 본도의 대부분 지방에서 행해졌으나 현재는 생략하는 지방도 많다.

2) 상여조 · 상여계

제주도에서는 어느 마을이든 장례시 노력동원 대상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그 상여조를 “골”이라 일컫는다. “골” 안에 장례가 있게 되면 각 가호에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적어도 한 명씩은 운상, 매장, 산담쌓기까지 치러야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다. “골”주민의 노력 부담을 제공받는 일을 <골 부린다>고 말한다. 보통 한 “골”을 동원하는 게 상례지마는 일이 힘겹다든지 성대히 치르고 싶어할 때는 두 “골”, 혹은 마을 가구 전부를 동원하기도 한다. 마을 전 가구를 동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를 <都鄉 부린다>고 말한다. 현재는 농촌인구 감소로 이웃마을의 장정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都鄉>부리게 되면 그 가구에 장정이 있든 없든 각 가구마다 여성이라도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처럼 <都鄕>부리는 장례풍속은 봉분을 훌륭히 쌓고 산담도 의젓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으나,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뜻이 컸었던 것 같다.

장례도구를 짐집마다 마련하기는 힘이 들었다. 장례도구도 “골”을 중심으로 계를 만들어 마련되고 사용했다. 이것을 <상여계>라 한다. “골”의 구성원이면서 이 계에 들지 아니하면 장례도구 사용시 반드시 <상여계>에 규약된 사용비를 내어야 하고 계원의 사용시에도 일정한 비용을 낸다. 이러한 비용으로 계를 유지시키면서 장례도구도 보수하고 더 좋은 도구로 준비해 나간다. 이러한 <상여계>의 조직도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설의 유형

사설 유형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우선 상여노래가 한국민요의 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한국민요의 대표적인 분류라 할 수 있는 고정옥, 임동권의 민요분류표를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위 분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여노래는 남요이면서 비밀상요이다. 곧 의식요이다. 대개 의식요는 노동요에 비해서 단순하고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¹⁶⁾ 보는 경향인데 상여노래는 단순한 의식요가 아니고 노동요적인 성격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례현장의 여러가지 여건, 망자의 신분과 직업, 선창자의 신분과 가창능력등에 의해서 불려지므로 비교적 다른 찬불요, 민간의식요등에 비하여 사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柳鍾穆은 「한국 민간 의식요 연구」에서 장례의식요의 유형을 망자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이별형,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허무형, 成墳할 때 주로 부르는 풍수지리설형, 삶과 죽음, 저승에로의 여정을 표시한 회심곡형, 선창자

16)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p.86.

* 한국민요의 분류

구분/내용	내 용	
고 정 옥	남 요	노동요타령, 양반노래, 도덕가, 취락가, 근대요, 민간신앙요, 단가, 경세가, 생활요, 정치요, 전설요, 어휘요, 유희요,
	부 요	시집살이노래, 작업요, 모녀애련가, 여탄가, 열러가, 꽃동네동녀요
임 동 권	민 요	노동요-남성의 노동요, 여성의 노동요
		신앙성요-불교요, 민간신앙요
		내방요-여탄가, 시집살이요, 찬유요, 생활요, 계절요
		정연요-문답요, 정애요, 정요
		만가
		타령-짐승타령, 조류타령, 음식타령, 화초타령, 기타의 타령
		설화요
	동 요	동물요-조류요, 짐승요, 곤충요, 어류요
		식물요-나무노래, 풀노래, 채채요
		현모요
		애무, 자창요
		정서요-가족요, 감상요, 정흥요
		자연요
		풍소요
		어휘요
		수요
유희요		
기타요		

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어 부르는 즉흥창작형의 5가지로 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定型化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상어 노래의 사실을 전승형태, 소재, 주제 등에 의거하여 사실의 유형을 살펴 보면 크게 고정형, 비고정형, 혼합형, 여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민요든 구비전승되므로 고정성과 유동성을 모두 갖고 있기는 하다.

가) 고정형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보편적 삶을 노래한 것이거나 관용적 표현등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승이 어느정도 고정화 된다. 여기서의 고정형은 한 글자의 틀림도 없이 완벽하게 전승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승되어 오면서 사실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소재가 비교적 튼튼하게 고정된 형태를 뜻할 뿐이다. 이러한 고정된 형태에는 주로 이별, 풍수지리설, 회심곡에 관한 내용들이다.

(1) 이별형

죽음은 곧 이승과의 이별이다. 망자와 생자는 어쩔 수 없이 이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어노래는 불러지므로 이별로 사실이 점철되어 고정화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시〉 ①

짜른세상	살다가네
허어창	얼화로다
극락세계가	웬말이나
허어창	얼화로다
부모동생	영이별호고
허어창	얼화로다
일가방상	영이별호고
허어창	얼화로다
산천벗님네	다이별호고
허어창	얼화로다.

산천극락이	웬말이나
허어창	얼화로다
술집의갈적원	친구도많고
허어창	얼화로다
북망산천갈적원	나혼자뿐이라
허어창	얼화로다
인제가면	언제올까
허어창	얼화로다
혼번가면	못웃질인가
허어창	얼화로다
우리벗님네	잘덜잇소
허어창	얼화로다
오늘보민	하직일세
허어창	얼화로다

..... <중략>

(필자채록 : 성산읍 온평리 강옥생, 여·72세)

장례시 가장 큰 사건은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여노래 전편에 이별의 사설이 없는 것은 없다. 고정형의 사설중에서도 이 이별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불리는 상여노래의 사설의 유형은 이 고정형이 대부분이다.

(2) 풍수지리설형

<예제> ②

어하능창	얼화로다
고사리단풍	좋은질로
어하능창	얼화로다
만섬곡석은	널어지 땅에
어하능창	얼화로다
백호청룡이	들더시니

어하능창	얼화로다
백호에는	아덜손이여
어하능창	얼화로다
청룡에는	뽕조손이여
어하능창	얼화로다

(필자채록 : 제주시 영평동 김봉주, 남·67세)

〈예시〉 ②에서 보는 것처럼 풍수사상 내용인 “산수열거”, “명산지”가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풍수지리설은 산천지세에 따라 택지나 묘지를 쓰면 미래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효사상과 功利的 사교의 영향으로 묘지선정에 이 사상의 영향이 더욱 철저했다. 이 풍수사상은 옛부터 있었으나 신라, 고려 초에 이르러 한층 더 널리 일반민중에 전파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는 깊게 내려져 있는 실정이다.¹⁷⁾ 상여노태에 이러한 풍수사상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자의 영혼을 편안하게 활려는 후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회심곡형

〈예시〉 ③

일직사자	손을잡고
우허어	우허어
월적사자	등을닐어
우허어	우허어
천방지방	돌아갈때
우허어	우허어
노픈데는	늦아지고
우허어	우허어
늦은데는	노파진다
우허어	우허어
악에악써	모은재산

17) 장덕순 외 3인, 『앞의 책』 p.111.

우허어	우허어
먹고가며	쓰고가나
우허어	우허어
여보시오	사자넌네
우허어	우허어
내맡잡깐	들어주소
우허어	우허어
시장흔데	점심헝고
우허어	우허어
신발이나	고쳐신고
우허어	우허어
쉬어가자	애겔흔들
우허어	우허어
들은채도	아니헝고
우허어	우허어
쇄몽치로	등을치며
우허어	우허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우허어	우허어
이렇저렇	여러날에
우허어	우허어
저심문을	다달으니
우허어	우허어
우두니찰	마두니찰
우허어	우허어
소레치며	달려들어
우허어	우허어
인정달라	헝는구나
우허어	우허어

(필자채록 : 애월읍 귀덕리 홍춘송, 남 · 79세)

〈예시〉 ④

아버님의	뺨를 빌어
어허랑창	어허로세
어머님의	술을 받아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이	태어났네
어허랑창	어허로세
애지중지	기른공덕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님의	공덕이다.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공을	가플라면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명령	순종하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마음	편케하여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님께	효도하자
어허랑창	어허로세

(필자채록 : 한림읍 금릉리 미상)

불교사상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통제는 거의 불교의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심곡”이 민간사회에서 빈번히 접하는 기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내면의식에 기억되었던 “회심곡” 내용들이 자주 상여노래에 등장하고 있다. “회심곡”은 가사체의 운문으로 석가여래의 공덕을 힘입어 이승에서 선악간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인과응보의 법대로 선인은 극락세계로 가며,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경계하고 착실히 마음을 닦으라고 권면하는 노래이다.¹⁸⁾

18) 「哲學大事典」學園社, 1976, p.1166.

이러한 “회심곡”의 내용중 <예시> ③,④에서 보는 것처럼 “탄생”, “사자압송”은 상여노래에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비고정형

상여노래는 자주 불려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창민요처럼 흥겨운 장소에서 불려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이 잘 전승되는 노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옛날처럼 거의 수공으로 장례의식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묘지에서 여러 도구와 기계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실정이라 선창자도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서 상여꾼 중에서 목청이 좋은 사람이 선창자가 되어서 장례의 상황과 망자의 환경에 따라 비교적 짧게 즉흥적으로 장례의식에 꼭 필요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로 불려지고 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긴 상여노래는 듣기 힘듭니다. 제대로 부를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또한 운구차로 묘지까지 실어 가므로 노래를 부를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상시 망자를 위로하는 의미로 누구든지 기분대로 조금씩 부릅니다.”와 같이 어떤 제보자가 지적한 바도 있거니와¹⁹⁾ 현재의 상여노래의 사실은 선창자의 기분대로 조금씩 부르는 실정이므로 점점 이 비고정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시> ⑤

어허허허	어허허허
오늘날씨도	퀘청하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모을	모든사람덜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인생하직하여	떠나는님을

19) 오명수, 한림읍, 한림리, 남·37세

어허허허	어허허허
정성다하여	보내드립니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살았을적의	우리를위해
어허허허	어허허허
얼마나많이	수고하였나
어허허허	어허허허
이렇게빨리	이별홀줄이던
어허허허	어허허허
술이나많이	먹어보컬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버님잃어	우는조식덜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지마라	우지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모두힘모아	살려주마걱정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덜똥걱정팔고	편안히가십시오
어허허허	어허허허

(필자채록 : 한림읍 한림리 오명수, 남·37세)

이러한 사설의 비교정형은 선창자의 의지대로 사설을 끌어 낸다. 그러므로 사설 내용에 있어서 가장 다양함을 보인다. 고정형보다 더 자유로운 사설 선택의 자격이 선창자에게 부여되므로 선창자의 능력도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고정형보다 사설에 있어서 서민의 솔직한 죽음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가 잘 나타나고는 있지만 즉흥적인 사설의 나열이므로 고정형보다 문학적 기교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교정형이라 하여 완전한 선창자의 개인 창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방자의 삶과 장례시의 분위기 등에 알맞는 선창자의 창작 사설에 고정형의 사설도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ㄷ) 혼합형

〈예시〉 ⑥

…………〈중략〉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헤노아	에헤노아
꽃이젓다고	서러워말고
에헤노아	에헤노아
맹년춘삼월	돌아오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너는또다시	안피는가
에헤노아	에헤노아
인생이란	돌아가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두번다시	불길엇고
에헤노아	에헤노아
맹년춘삼월	돌아오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너는또다시	안피는가
에헤노아	에헤노아
아차실수	돌아가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두번다시	못오는데
에헤노아	에헤노아
살아생전	다늬기전의
에헤노아	에헤노아
잔도들고	놀아보세
에헤노아	에헤노아

(필자채록 : 한림읍 신창리 양한평, 남·54세)

고정형과 비고정형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즉, 혼합형은 원래 선창자가 고정형

을 부르다가 판의 분위기와 묘지까지의 거리가 노래의 길이 보다 더 길 때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선창자의 즉흥적인 창작사설이 끼어 든 형태를 이른다. 비고정형과 혼합형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선창자의 본래 의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처음부터 순수한 개인의 발흥에 의한 노래면 비고정형이고 처음에는 고정형에서 개인창작으로 변한 것은 혼합형으로 구별된다. 제주도 상여노래는 이 혼합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 여음형

상여노래에 일반적 사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음사설만으로 불리는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여음형은 흔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의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예시〉 ⑦

영영- 허- 영- 응-
 응- 음-- 영응- 영- 응-
 영- 음영- 영- 허응-

(필자채록 : 구좌읍 한동리 오무송, 남·72세)

〈예시〉 ⑦과 같은 여음형의 상여노래는 망자 또는 상주 등 장례의 배경 때문에 특정한 장래시에 불리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요의 발생이 여음에서 출발하여 그 일이나 상황에 알맞은 사설이 가미되면서 하나의 민요로 정제되었음을 인정할 때 여음형도 상여노래의 형성초기의 원초적 형태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노래라 할 수 있다.

3. 기 능

김소운은 「언문 조선 구전 민요집」서문에서 “남들은 민요를 생활의 반주삼아 즐겨

왔으며 우리는 민요에 매달려 살아왔다. 민요를 기루었다기보다 민요를 뚫대삼아, 노삼아 저어왔다.”라 하여 우리의 민요는 어려운 민족사의 수난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역사의 버팀목으로써 구실을 하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에서 민요의 기능을 노동적 기능, 정치적 기능, 종교적 기능, 자용도태적 기능의 네가지로 나누고 있고, 임동권은 「한국민요사」, 「한국민요연구」 등에서 여론 형성의 기능, 주술적 기능, 예언적 기능, 노동적 기능, 정치적 기능, 종교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민요 전반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민요전반적인 기능들을 전제로 하여 제주도 상여노래의 기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의식요는 통과의식요(혼례요, 회갑연요, 장례소리)와 신앙의식요(무가, 불가, 액풀이요)로 나누고 있다.²⁰⁾ 그러나 의식요 중에서 상여노래에는 노동요적인 성격도 강하다. 이러한 상여노래는 상어를 묘지로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려지고, 또한 망자를 위로 하기 위해서, 상주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려지므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들이 있기 마련이다. 상어를 메고 묘지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상여꾼들의 피곤함을 덜기 위한 상여운반적 기능이 있다. 무거운 상여에 비하여 상여의 폭과 길이가 좁은 편이다. 그러한 좁은 공간에 상여꾼들이—12명정도—운구해 나가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상여꾼들이 서로의 호흡의 일치를 보이면서 발을 맞추어 순조로운 운상을 위한 기능을 뜻한다.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상여노래이다. 죽음이란 생자와 망자와의 영원한 이별, 단절, 차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란 슬픔 그 자체일 것이다. 상주들의 처참한 슬픔은 다시 상여꾼들의 슬픔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신적 아픔이 상여노래를 통해서 정제된다. 그러므로 상여노래에 정화적 기능이 있다. 또한 상여노래에서 망자와 상주가족들의 슬픔 위로는 결국에는 그들의 행복추구로 귀결된다.

20) 순종홍, 「의식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그래서 일상생활의 표현보다는 장례의식에 관계되는 노래, 인간대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대 신적 존재와의 노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구복적 기능이 존재한다.

7) 상여운반적 기능

상여노래는 상여를 메고 묘지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제주도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산세와 토지가 험하여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 그래서 묘지로 가는 상여꾼들은 대단히 힘이 들었다. 또한 풍수지리설에 의한 택지(擇地)로 묘지까지의 거리는 먼 곳이 대부분이다. 보통 12명의 상여꾼들이 동원되는데 묘지까지 계속 운송해가기란 대단한 노동이어서 상여꾼들이 교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여노래는 일정한 가락으로 상여꾼들이 호흡의 일치를 이루어 일의 규칙과 능률을 꾀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이 상여운반적 기능이다.

<예시> ⑧

어하능창	얼화로다
가네가네	나는가네
어하능창	얼화로다
저심질이	멀다흐니
어하능창	얼화로다
창문안이	이싱이요
어하능창	얼화로다
창문박귀	저심일세
어하능창	얼화로다
입던옷을	다벗어두고
어하능창	얼화로다
신던신발	다벗어두고
어하능창	얼화로다
아덜 많다	똥 많다해도
어하능창	얼화로다
창문박귀	극락흐니
어하능창	얼화로다

나갈길은 천리로구나
 어하능창 얼화로다
 고사리단풍 좋은질로
 어하능창 얼화로다
 만섬곡석은 널어진땅에
 어하능창 얼화로다
 백호청룡이 들터시니
 어하능창 얼화로다
 백호에는 아덜손이여
 어하능창 얼화로다
 청룡에는 딸조손이여
 어하능창 얼화로다
 ……………〈중략〉

(필자채록 : 제주시 영평동 김봉주, 남·67세)

사설의 내용에서만 아니라 상여노래를 부르면서 장지로 가는 도중 지루함을 느낄 때 혹은 땅이 진 데나 언덕을 오를 때 음의 높이가 더욱 올라가는 것은 힘을 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여운반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ㄴ) 정확적 기능

상여노래는 죽음의 노래이므로 슬픔이 수반된다. 노동요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한 노동을 치르며 구연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발흥과 조흥, 그리고 심미적 쾌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뚜렷이 보여 준다고²¹⁾했다. 상여노래는 운상일에 수반되므로 슬픔이 강하게 나타난다.

상주들의 슬픔을 해소시켜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이웃된 도리로 당연하다. 그래서 상여노래에 해학적 사설을 삽입시켜 상여꾼들이 부른다. 해학적 사설로 상주들의 슬픔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운상일에 동참하는 여러 상여꾼들도 그 해학

21)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上)」 일조각, 1965. p.86.

적 사설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고무하며 정신적 고통을 푼다. 이것이 곧 정화적 기능이다.

〈예시〉 ㉑

행해야	얼화로다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행해야	얼화로다
월출동경	달이솟나
행해야	얼화로다
놀이놀아	젊어놀아
행해야	얼화로다
늪어지면	못노나니
행해야	얼화로다
오동추야	뜰이동실떠
행해야	얼화로다
임이야생각이	절로난다
행해야	얼화로다
.....〈중략〉	

(필자채록 : 구좌읍 한동리 오무송, 남·72세)

상여노래에는 그 슬픈가락과 사연을 통하여 슬픔의 분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어 상주와 상여꾼들의 기분을 흥겹게 한다는 기능을 가졌다. 그것은 장거리의 운상길에서 오는 피로를 대도시적 준다는가, 피로를 흥겨운 가락에 의해 풀어 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²²⁾ 이러한 상여노래의 정화적 기능에는 상여꾼들의 흥겨운 노래로 경직되고 슬픈 상주들의 심리상태를 위로하는 1차적 기능과 상여꾼들의 노동의 효과를 높이는 2차적 기능도 그 내면에 깔려 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22) 김성배, 「한국 향두가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9·10집, 동국대학교, 1975. p.62.

도와주는 미풍양속의 하나요 또한 상가에 주는 부조의 의미이기도 하다.

ㄷ) 구복적 기능

민요의 원초성을 인정할 때 고대시가, 무속신앙등 공통적 요소는 구복성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기원자의 안녕과 행복을 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여노래가 예외일 수 없다.

〈예시〉 ⑩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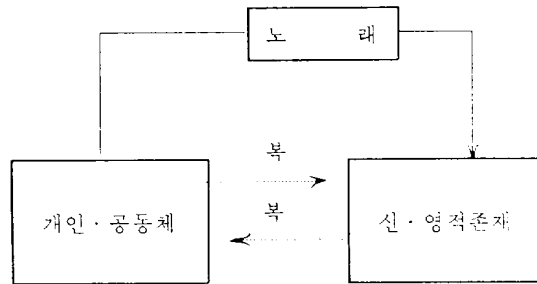
인생하직하여	떠나는님을
어허허허	어허허허
정성다하여	보내드립시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살았을적의	우리를위해
어허허허	어허허허
얼마나많이	수고하엿나
어허허허	어허허허
이렇게빨리	이별홀줄이면
어허허허	어허허허
술이나많이	먹어보컬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버님잃어	우는조식덜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지마라	우지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모두힘모아	살려주마걱정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덜꼴걱정마고	편안히가십시오
어허허허	어허허허
저심가도	우리민을생각하여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덜앞질
어허허허

다까주십시오
어허허허

(필자채록 : 한림읍 한림리 오명수, 남·37세)

상여노래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신, 영적 존재와의 관계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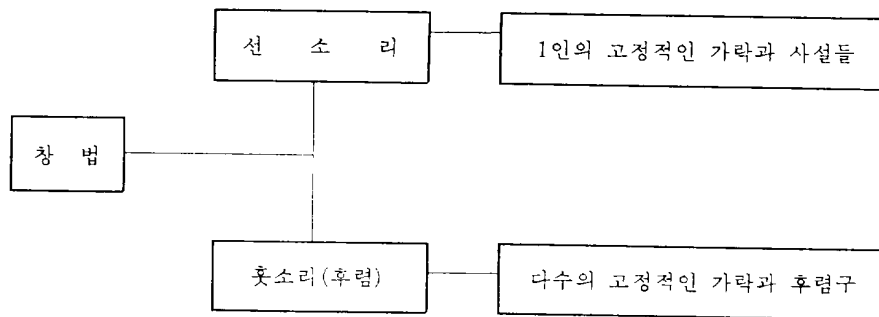
이러한 관계가 성립됨으로 생자의 복과 망자의 복을 비는 기능이 나타난다. 인간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며 생자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내세의 설정과 그내세를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상여노래에는 망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보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망자에게는 내세 구복을 통하여 저승에서의 再生의 길을 열어주고 生者에게는 현세 구복을 빚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여 현세의 삶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즉, 슬픔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져주고 있는 것이다.

4. 가창형식

상여노래의 가창성에 나타나는 외적 구조 파악을 뜻한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상여노래의 형식을 창법, 악곡, 율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7) 창 법

상여노래는 장례에 참여한 상여꾼들에 의해 불려진다. 1인의 선창자와 다수의 후창자의 호응에 의해 가창되므로 선후창의 창법으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분석해 보면 “본사+후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창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선후창으로 불려지는 민요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렴으로 의미의 단위를 알 수 있고 행이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의 길이는 전적으로 선창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곧 선창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도 타지방에서 선창자를 모셔다 노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선창자의 가창 능력이 중요시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창자가 상여의 맨 앞, 혹은 상여옆에서 독창으로 선소리를 하면 12명의 상여꾼들은 합창으로 후렴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의 모든 상객들도 후렴을 받기도 한다.

민요의 후렴은 본사 이전에 생긴 것으로, 처음의 민요 형태에는 “아으”, “이바”, “어여자”, “어기여차” 등의 첩어적 반복의 형태에서 차차 의미있는 가사가 삽입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²³⁾ 제주도 상여노래의 후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일조각, 1981, p.52.

- (1) 행혜야 열화로다
- (2) 어허랑창 어허로세
- (3) 어허엉창 열화로다
- (4) 앵혜야 방화로구나
- (5) 우허허허 우허허허

후렴의 성능에 대하여는 (1) 조율적 성능 (2) 휴식적 성능을 지적하고 있다.²⁴⁾ 조율적 성능이란 흥을 돋우고 음악적 선율을 일으키는 구실, 즉 음악의 생명인 喚氣性을 말하는 것이다. 휴식적 성능이란 선창자에게는 다음 사실을 생각해 내는 휴식의 시간이 되며, 후창자에게는 사실의 이해를 돕고 그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이 된다. 이 두 성능 중 조율적 성능이 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²⁵⁾라 하여 조율적 성능을 강조했다. 이러한 후렴의 성능은 노동요일 때는 노동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어려운 일에서 오는 육체적 아픔을 극복시키는 조율적 성능이 강조되었고, 의식요일 때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함으로 선창자가 사실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래서 선창자의 사실준비가 매우 중요함으로 휴식적 성능이 강조된다. 제주도 상여노래는 의식요일면서 노동요일이므로 조율적 성능과 휴식적 성능 모두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상여노래의 후렴은 위의 (1)~(5)의 형태로 어느정도 정제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상여노래의 전통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원시종합예술(Ballad)에서 서서히 분화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숙된 노래로 정착된 것을 의미한다.

24) 柳鍾穆, 「앞의 책」, p.140.

25) 鄭東華, 「앞의 책」, p.53.

ㄴ) 악 곡

민요의 음악적 성격을 고찰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민요를 이루는 음악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흔히 음악은 리듬적 요소, 선율적 요소, 음향 및 화성적 요소, 표현적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한 민요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민속음악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사실이 갖는 구비문학적 혹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사실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몇가지 관점에서 음악적인 성격을 객관하고자 한다.

* 일반 상여노래의 대표적인 악곡



(악곡채보자 : 조영배, 제주교육대학)

* 여음형 상여노래의 대표적인 악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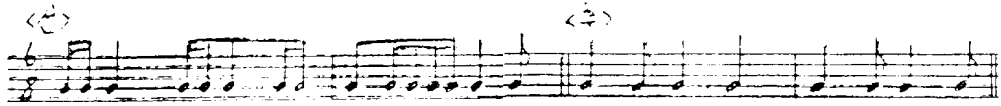
(악곡채보자 : 조영배, 제주교육대학)

따라서 이 두가지 종류의 민요별로 사설구조의 고정 유무를 알기 위하여 리듬과 선율적 요소 중 리듬의 고정성과 유동성을 우선 살펴보고, 율격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소 중 프레이즈를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1) 리듬적 요소

민요는 본래 유동적이지만 음악적 구조는 상당히 고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상여노래의 리듬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민요에 비해 비교적 리듬이 고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상여 노래의 리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곡채보자 : 조영배, 제주교육대학)

위 악곡처럼 아주 단순한 리듬을 비교적 고정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이 민요는 박자적 고정감이 뚜렷하여 사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여음형 상여노래도 리듬이 고정적이다. 그러나 일반 상여노래에 비하면 비교적 리듬이 장식적이기도 하다. 상기한 악곡도 한가지 예로써 제시한 것일뿐 장식적인 리듬처리가 가창자에 따라 자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가락의 형태로 보면 여음형 상여노래도 아주 고정적인 선율유형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 민요가 앞서의 일반상여노래보다는 그만큼 토속적이고 원초적인 민요라는 것을 뜻하며, 점차 사설이 붙어지면서 이 민요가 발전해 나간다고 해도 그 리듬이 일반 상여노래보다는 덜 체계적이고 덜 고정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측케 해 준다.

여음형 상여노래의 리듬이 비교적 변칙적으로 장식되는 부분을 표시해 보면 아래 악곡과 같다(~~~~ 밑줄 그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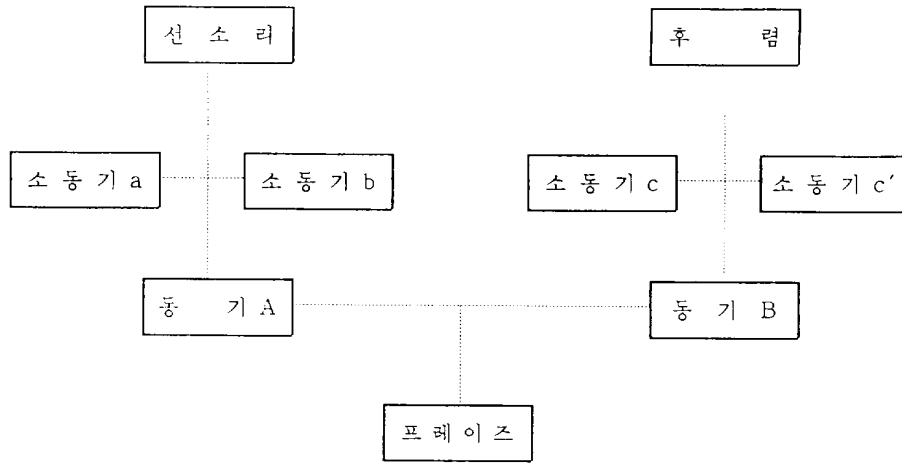


(악곡채보자 : 조영배, 제주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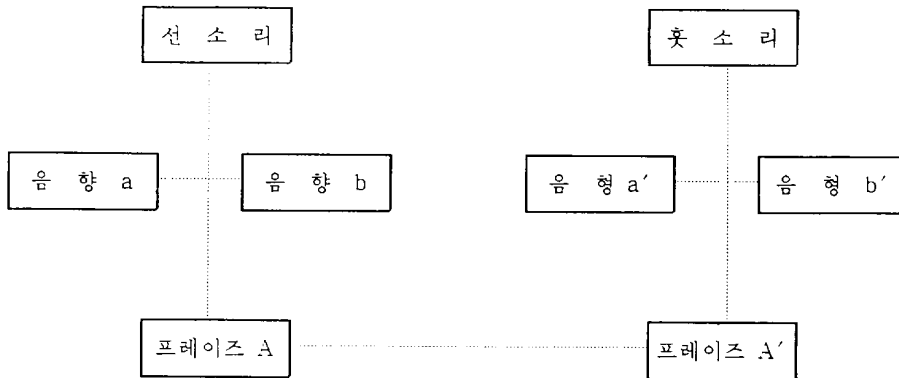
(2) 형식적 요소 중 프레이즈

음악의 프레이즈는 사설의 율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 상여노래의 프레이즈는 선소리와 후소리의 두 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선소리의

서미프레이즈(동기)와 후렴의 세미프레이즈(동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각 세미프레이즈는 다시 소동기를 갖고 있다. 그 프레이즈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음형 상여노래의 프레이즈도 선소리와 후소리의 두개의 프레이즈로 되어 있다. 일반 상여노래와 마찬가지로 각 프레이즈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두개의 세미 프레이즈(음형)를 갖고 있다. 이 민요의 프레이즈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일반 상여노래는 2음보로 상당히 사설유형이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반하여 여음형이기 때문에 사설의 율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음형 상여노래에도 사설이 붙여질 경우 2음보의 성격을 띠는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ㄷ) 율 격

민요에 있어서 율격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율격이 민요의 형식적 특성이나 전통성 해명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미적 실체의 해명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²⁶⁾ 현재까지 율격을 음수율과 음보율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선학들이 연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질상 중국이나 일본의 정형시에서처럼 일정한 지수의 제한을 얻지 못하게 됨을 수긍한다.²⁷⁾ 와 열가지 이내의 음수율 설정으로 모든 민요를 두루 포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²⁸⁾ 처럼 민요를 음수율로 율격에 대한 접근은 어렵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격의 基層單位을 음보에 두어 상여노래의 율격을 알아 보겠다. 그런데 아직 음보의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학자에 따라 기준이 다른 실정이다. 필자는 주관적 형상인 休止(Cesura)를 경계로 한 氣節(Breath uonit)을 음보의 기준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음보의 개념이 호흡의 단위로 보통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 ⑪

으어허	어허어
으어허	어허어
명사십리	해당화야
으어허	어허어

26) 成基玉, 「韓國文學 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p.47.

27) 趙潤濟, 「時調字數論」 「新興」 제4호. 1930.

28) 최철편저,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p.125.

꽃진다고	설워마라
으어허	어허어
맹년삼월	봄이오면
으어허	어허어
너는다시	피련마는
으어허	어허어
우리인싱	훈번가면
으어허	어허어
다시오기	어려워라
으어허	어허어
북당산에	들어갈때
으어허	어허어
어찌할고	심상흠을
으어허	어허어
한정엇는	질이로다
으어허	어허어
이세상을	하직후
으어허	어허어
언제다시	돌아오나
으어허	어허어
처자권속	손을잡고
으어허	어허어
만단설화	다못하여
으어허	어허어
정신초려	슬퍼보니
으어허	어허어
약탕관을	버려놓고
으어허	어허어
지성구효	극진훈들
으어허	어허어
죽을목숨	살릴소냐
으어허	어허어

옛날산네	말들오디
으어허	어허어
저심 짚이	말다라디
으어허	어허어
오늘내제	당혹오디
으어허	어허어
대문밖의	저심이라

.....〈중략〉

(필자채록 : 애월읍 귀덕리, 홍춘송, 남·71세)

〈예시〉 ⑫

앵헤야	얼화로다
앵헤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앵헤야	얼화로다
요보시오	시주님네
앵헤야	얼화로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앵헤야	얼화로다
이세상에	나온사람
앵헤야	얼화로다
누구덕으로	나왔는가
앵헤야	얼화로다
석가여래	공덕으로
앵헤야	얼화로다
아버님전의	뻘을빌어
앵헤야	얼화로다
어머님전의	술을빌고
앵헤야	얼화로다
찰성님전의	맹을빌어
앵헤야	얼화로다
이내몸이	탄생하니

엥헤야	얼화로다
어러울땐	철을놀라
엥헤야	얼화로다
부모은공	아를손가
엥헤야	얼화로다
이삼십을	당후여도
엥헤야	얼화로다
부모은공	못값아
엥헤야	얼화로다
어이엇고	애답구나
엥헤야	얼화로다

(필자채록 : 조천읍 함덕리, 박인수, 남·78세)

〈예시한〉 노래 ⑪, ⑫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조사한 제주도의 상여노래는 모두 2음보의 율격구조를 갖고 있다. 2음보는 1음보 다음으로 급격한 느낌을 주는 율격²⁹⁾으로 2음보로 가창되면 동작에 변화를 주어 비교적 빠른 동작으로 전환된다. 상여노래는 창민요처럼 편안한 자세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고, 또한 독창으로 불려지는 노래도 아니다. 여러 상여꾼들이 힘을 모아 묘지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상여꾼들의 합심과 협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하관(下棺)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정한 시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의식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흡의 일치와 동작이 빨라야 하므로 비교적 빠른 리듬인 2음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여노래의 2음보 율격은 실제적 현상인 작업의 효과와 능률의 면에서 당연한 리듬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민요에 비해서 대단히 단조로운 율격임에는 틀림이 없다.

29) 張德順 外 3人, 「앞의 책」, p.93.

5. 주 제

민요는 어떤 유형의 민요든 삶을 노래하고 있다. 삶에는 다양성과 복합성이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의 양면성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요에는 비참과 애수를 띠게 마련이지만³⁰⁾ 상여노래에 죽음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죽음은 곧 영원한 이별이다. 이러한 죽음을 노래한 상여노래에 나타난 주체의식은 크게 망자와 생자 사이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극복 망자를 위로하는 망자 위로, 일가친족들에게 부탁하는 효, 인생은 길게 살아야 단 80이라는 인생무상으로 나눌 수 있다.

ㄱ) 이별의 슬픔을 극복

상여노래는 망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며 부르는 노래이므로 여러 식구, 친척들과 이별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예시> ⑬

쪽른세상	살다가네
어허영창	얼화로다
극락세계가	웬말이나
어허영창	얼화로다
부모동심	영이별하고
어허영창	얼화로다
일가방상	영이별하고
어허영창	얼화로다
산천벗넘에	다이별하고
어허영창	얼화로다

30)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上)」 일조각, 1965. p.403.

산천극락이 웬말이나
 어허영창 얼화로다
 술집의갈적원 친구도많고
 어허영창 얼화로다
 북망산천갈적원 나혼자뿐이라
 어허영창 얼화로다
 인제가면 언제올까
 어허영창 얼화로다
 혼번가면 못을질인가
 어허영창 얼화로다
 우리벗님네 잘덜잇소
 어허영창 얼화로다
 오늘보민 하직일세
 어허영창 얼화로다
 양단어께에 수문장결영
 어허영창 얼화로다
 북망산천 멀다더니
 어허영창 얼화로다
 저건넌한발이 북망이로구나
 어허영창 얼화로다
 나살아놓아라 쉬어나가자
 어허영창 얼화로다
 극락세계로 어서로가자
 어허영창 얼화로다
 ……〈중략〉

(필자채록 : 성산읍 온평리, 강옥생, 여·72세)

〈예시〉 ⑬

어허허허허허허
 어허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나는이식상버리고간다
 어허야 얼화로다

나는갈지라도 너희들랑있고자거라
 어허야 일화로다
 오늘에내가갓다가 맹년이구늘돌아오면뜨다시돌아올수있것나
 어허야 일화로다
 오늘에나는가면 극락세계로간다
 어허야 일화로다
 나자식덜나친족 잘자라고있거라
 어허야 일화로다
 내가간다해도 십십이라는말어
 어허야 일화로다
 칠팔십이건너간 내가갈적에
 어허야 일화로다
 간다는이세상이야 일다나 좋겠지
 어허야 일화로다
 오늘가면수만년살곳으로 나는간다
 어허야 일화로다

(필자채록 : 애월읍 수산리, 부규일, 남·60세)

<예시> ⑬, 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여노래는 망자를 묘지로 운반하면서 부르는 것으로 구절구절에 뼈에 사무치는 이별가적 심회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나 이별이 원망과 슬픔으로 얼룩진 곳은 드물다. “극락세계로 어서로가자”와 같이 내세관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제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식들나 친족들 잘 자라고 있거라”에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재회할 수 있는 희망으로 그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소멸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인 輪廻思想에서 죽음으로 인한 至痛의 슬픔을 극복시키고 있다.

ㄴ) 효의 권계

상여노래에서 선창자가 망자의 입장에서 일가친척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형식의

것들이 많다. 그것들 대부분이 유교적 내용인 효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사
 상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예시〉 ⑮

………〈중략〉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마음	편케호여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님께	효도호자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세상에	불효증생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공을	모르고서
어허랑창	어허로세
호색잡기	허욕탐식
어허랑창	어허로세
치신치수	호고보면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부간에	성계간에
어허랑창	어허로세
불순호고	친척간의
어허랑창	어허로세
의리궤고	악의악행
어허랑창	어허로세
탐심호며	천금호튼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의	천병만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쇠신호여	요지부동
어허랑창	어허로세
천금인들	당할손가
어허랑창	어허로세

만금인들	당할손가
어허랑창	어허로세
천만금도	쓸데엇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이	귀중쿠다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때홀연	생각흐니
어허랑창	어허로세
후회흐고	후회흐며
어허랑창	어허로세
과거사를	생각흐니
어허랑창	어허로세
꿈결?튼	이내마음

(필자채록 : 한림읍 금능리 미상)

유교 덕목인 삼강오륜은 옛날처럼 대단한 도덕적 매력은 많이 퇴색된 느낌이지만 지금도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지탱시켜 주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역시 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의 강조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것과 암시적으로 죽은 망자를 잘 받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죄종의 으뜸이 불효타 했으니 마지막으로 일가친척들에게 효를 권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ㄷ) 망자 위로

상여노래는 선창자의 위치가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망자의 입장에서 현세에 남아 있는 일가친척들에게 효, 교훈과 삶의 진리를 대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주와 일가 친족들을 대신해서 떠나가는 망자를 위로하는 입장이다. 선자의 입장에서 노래한 것은 주로 효가 되고 후자의 입장에서 노래한 것은 주로 망자를 위로하는 것이 된다.

〈예시〉 ⑩

어허허허 어허허허
오늘날씨도 꿇청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마을 모든사람덜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인생하직여 떠나는님을
어허허허 어허허허
정성다 보내드립시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살았을적의 우리를위해
어허허허 어허허허
얼마나많이 수고 었나
어허허허 어허허허
이렇게빨리 이별홀줄이면
어허허허 어허허허
술이나많이 먹어보컬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버님잃어 우는 식덜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지마라 우지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모두힘모아 살려주마 걱정마라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덜홀 걱정덜고 편히가 십시오
어허허허 어허허허
저심가도 우리마을 생각 여
어허허허 어허허허
우리덜앞질 다가 주 십시오
어허허허 어허허허

(필자채록 : 한림읍 한림리 오명수, 남·37세)

〈예시〉 ⑰

행혜야 얼화로다
일락서산 해는지고
행혜야 얼화로다
월출동경 달이솟나
행혜야 얼화로다
어허 허사로다
행혜야 얼화로다
놀이놀이 젊어놀이
행혜야 얼화로다
늙어지면은 못노니니
행혜야 얼화로다
오동추야 돌이동실떠
행혜야 얼화로다
임이야생각이 절로난다
행혜야 얼화로다
얼싸종다 방화로다
행혜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북망산에
행혜야 얼화로다
육림우박이 어데더나
행혜야 얼화로다
인생일생은 춘몽인데
행혜야 얼화로다
어허야 죽자함은
행혜야 얼화로다
아무나갈질이니 어서가자
행혜야 얼화로다
저성질이멀다해도 대문박귀저성질이야
행혜야 얼화로다

(필자채록 : 구좌읍 한동리 오부승, 남·72세)

〈예시〉 ⑩, ⑪에는 선창자가 상주 및 일가친척을 대신해서 망자를 위로하고 있다. 인생은 어차피 一場春夢이나 서러워 말고 떠나라는 것이다.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망자의 마음은 아플 것이고 어린 자식을 두고 죽기란 대단히 참혹하여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러한 망자의 경우에는 상여노래를 부르는 선창자가 일가친족을 대신해서 망자가 남기고 떠나는 어린자식들 잘 돌보겠노라고 위로한다. 유사이래 영웅호걸들도 모두 죽었으니 한번 태어나면 모두 죽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미련일랑 깨끗이 씻어버리고 편안히 저생으로 떠나라는 生者必滅의 불교적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망자를 위로하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곧 저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죽음을 특별한 절차로 보지 않고 삶의 연속으로 파악함으로써 어찌면 죽음까지도 삶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ㄹ) 인생무상

영원한 자연사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滄海一粟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아니라 空手來 空手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소득의 삶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양·질적으로 보잘것 없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배경에서 삶을 영위하므로 오욕칠정에 시달리고 갈등한다. 인간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그 자체이다. 이러한 삶속에서 갑자기 망자가 생겼을 때 생자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의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면서 부르는 상여노래에 인생무상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시〉 ⑫

앵헤야	방화로다
인생백년	여주마로구나
앵헤야	방화로다
아니놀구서	무엇을 하나
앵헤야	방화로다

이팔청춘	소년덜아
앵헤야	방화로다
백발보구서	웃지니말고
앵헤야	방화로다
나도어제	청춘이로구나
앵헤야	방화로다
오널날은	백발이로다
앵헤야	방화로다
무정세월	흘러나가니
앵헤야	방화로다
너는매일야	젊을소나
앵헤야	방화로다
맹사십리	서러위마소
앵헤야	방화로다
맹년이철	춘삼월오면
앵헤야	방화로다
또다시한번	피련마는
앵헤야	방화로다
우리인생	훈번가면
앵헤야	방화로다
다시오기는	영어렵느니
앵헤야	방화로다
술은씩어서	진토가돼고
앵헤야	방화로다
빼는씩어서	황토가돼니
앵헤야	방화로다
우리인생	불쌍하도다
앵헤야	방화로다
우로그튼	인생질이
앵헤야	방화로다
허망하고	꿈결근다
앵헤야	방화로다

(필자채록 : 표선면 하천리 강진옥, 남·78세)

〈예시〉 ㉔에서 이팔 청년소년과 망자를, 해당화(자연)와 우리 인생(인간)을 대비시켜서 인간 삶의 무상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Ⅲ. 결 론

제주도의 장례의식요에는 상여노래, 진토곳노래, 탈구노래가 있다. 그 중 상여노래는 상여를 모지로 운반하면서 불려지는 노래로 의식요이면서 노동요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가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제주도 상여노래의 배경, 사실의 유형, 기능, 가창형식, 주제를 중심으로 민속학, 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음악적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음악적 측면에서 보충함으로써 제주도 장례의식요 중 상여노래의 위상과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과제를 밝힌다.

1) 장례의식요중 상여노래는 상여를 모지로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노래다. 상여노래는 장례의식에 불려지고, 상여를 모지로 운반하면서 가창되므로 의식요이면서 노동요의 성격도 강하다. 이러한 상여노래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다만 「隋書高句麗傳」에 기록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시대의 판소리중 「배비장전」에 단편적인 내용이 전한다.

2) 제주도 장례의식의 절차는 ①임종 ②초혼 ③연습 ④조관 ⑤입관 ⑥출구 ⑦발인 ⑧운상 ⑨하관 ⑩성분 ⑪귀양풀이로 이루어지고 ⑧,⑩,⑪의 과정에서 노래가 불려지는데 주된 장례의식요는 ⑧, ⑩에서 불려진다.

3) 제주도 상여노래의 사실의 유형에는 고정형, 비고정형, 혼합형, 여음형이 있다. 사실의 고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고정형에는 망자와 이별의 사실로 절철된 이별형, 옛날에 음택(陰宅)을 중시했으므로 산수 열거와 명산지 사실로 된 풍수지리설형, 불교의 회심곡 사실로 이루어진 회심곡형이 있다. 상여노래는 장례의식에 불려지므로 가창기연의 제한성, 도시화로 장례의식의 간편화 등으로 고정형이 가장 많다.

4) 제주도 상여노래의 기능에는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상

어꾼들이 서로 호흡의 일치를 보이면서 발을 맞추어 순조로운 운상을 위한 상어운반적 기능, 망자와의 영원한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화적 기능, 상어노래에는 일상생활이 표현보다는 인간대 신적 존재와의 노래가 중심이 되어 구복적 기능이 있다.

5) 제주도 상어노래의 창법은 1인의 선창자와 12명의 상어꾼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의 후창자와 호응에 의해서 불러지므로 선후창 가창형식을 갖고 있다. 제주도 상어노래의 후렴은 “앵헤야 얼화로다” “어허랑창 어허로세” “어허영창 얼화로다” “앵헤야 방화로구다” “우허허허 우허허허” 등 다양하나 단지 행의 구분을 나타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6) 제주도 상어노래는 전반적으로 다른 민요에 비해 비교적 악곡이 고정적이고 비장식적이며 한 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 상어노래의 율격은 무기운 상어를 메고 장지를 가면서 불러지므로 비교적 빠른 2음보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도 상어노래에는 모두 이러한 2음보의 율격으로 되어 있다.

7) 제주도 상어노래의 주제는 크게 망자와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이겨내는 중심내용으로 나타나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 망자가 일가친척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인 효의권계, 생자가 망자를 위로하는 망자 위로, 인생은 길게 살아야 단 팔십이라는 인생무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주도 상어노래의 실상을 고찰하려는 데 진력했다. 급속도로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한 오늘날 이러한 상어노래의 유산은 보존되지 못하고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상어노래의 수집과 체계적 연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 연구가 전개되고 남은 아쉬움은 많으나 그 중 가창기연의 제한성에서 오는 총체적인 자료수집의 미약과 음악적 측면의 고찰이 불충분함을 자인한다.

앞으로 제주도 장례의식요의 실상 파악을 위해 진토굿노래, 달구노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한본토 장례의식요와의 비교연구도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1

-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 奇老乙, 「韓國輓歌集(호남·제주편)」청림출판, 1990.
- 金聖培, 「香頭歌·成造歌」正音社, 1975.
- 「韓國의 民俗」集文堂, 1980.
-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조약돌, 1983.
- 金宅圭·成炳禧, 「韓國民俗研究選 I」, 一潮閣, 1982.
- 成基玉, 「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 1982.
- 嚴弼鎭, 「朝鮮童搖集」, 彰文社, 1924.
-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韓國民俗研究」, 二友出版社, 1980.
-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 張德順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81.
-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 秦聖麒, 「南國의 民謠」濟州島民俗文化研究所, 1958.
- 최 철 편저,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省文社, 1963.
- 西郷信綱, 「詩の發生」未來社, 1978.

2

- 姜性均, 「제주도 김매리는 노래 연구」, 「民謠論集」民謠學會, 1988.

- 金聖培, 「韓國香頭歌 研究」,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論文集」 제9,10집, 東國大學校, 1975.
- 金榮敦, 「濟州島民의 通過儀禮」 「韓國民俗研究選 I」, 一潮閣, 1982.
 「濟州島民謠의 位相」 「교육제주」 제18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民謠의 機能과 事實」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濟州島 民謠와 勤勉性」 「제주도」 제43호, 제주도, 1970.
- 柳鍾穆, 「상여노래의 형식에 대하여」 「동아대학교국어국문학논문집」 제5집, 동아대학교 1982.
 「韓國民間儀式謠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박희선, 「韓國民謠 輓歌의 文學的 研究」 「한성어문학」 제2집, 한성대학 1983.
- 邊聖久,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民謠論集」 民謠學會, 1988.
- 순중흙, 「의식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申瓚均, 「輓歌의 韓·中·日·比較研究」 「比較民俗學」 比較民俗學會, 1990.
-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尹致富, 「韓國자장가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李鉉洙, 「韓國民謠에 나타난 生死觀」 「韓國民俗學」 제14집, 民俗學會, 1981.
- 任東權, 「민요에 나타난 佛敎」 「서라벌文學」 제2호,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학회, 1966.
- 林憲道, 「香頭歌의 分段的 考察」 「공주사범대학논문집」 제17집, 공주사범대학, 1979.
- 趙東一, 「現代詩에 나타난 전통적 울격의 계승」 「우리 문학과 의 만남」 弘盛社, 1978.
- 趙潤濟, 「時調字敎論」 「新興」 제4호, 1930.
- 좌영조, 「한국민요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5.
- 左惠景, 「濟州傳承童謠研究」 「民謠論集」 民謠學會 1988.
- 玄平孝外 7人, 「耽羅精神探究」 「제주대학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 1979.

summary

A study on the pallbearers' dirge in che-ju Island

Kang Moon-Yoo

Keorean Language major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il

A pallbearers' dirge in Che-ju Island is sung by bier bearers as they bear a funeral bier to a burial ground,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ceremonial and laborious dirge. In addition to, it reflects the attitude toward life and death which Che-ju inhabitants have.

In this paper, I study not only the background of a pallbearers' dirge, but the type of its account, its functions, its forms, and its themes. My approach to it is the aspect of folklore and literary, and in the aspect of music when any musical approach is required.

Living in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society, we find our important inheritance of a pallbearers' dirge destroyed all hollow.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collect and inquire into the pallbearers' dirge system actually. Under the circumstances, however, I try my best to grasp the phase and reality of the dirge. But I can not paper leaves much to be desired.

* 제주도 장례의식요 활용자료 목록

자료번호	조 사 지 역	제 보 자	조 사 일 시	조 사 자
1	애월읍 남읍리	변윤찬(남·67세)	1988.1.17	필 자
2	"	고성순(남·63세)	"	"
3	애월읍 수산리	부규일(남·57세)	1989.1.18	"
4	"	김용삼(남·52세)	"	"
5	한림읍 귀덕리	홍춘송(남·71세)	1989.8.20	"
6	"	"	"	"
7	"	"	"	"
8	한림읍 금릉리	미 상	1986.8.24	"
9	한경면 고산리	송충구(남·68세)	1987.1.19	"
10	한경면 판포리	이공직(남·66세)	1987.1.23	"
11	한경면 신창리	양한평(남·54세)	1987.1.24	"
12	한림읍 한림리	오명수(남·37세)	1988.1.20	"
13	구좌읍 한동리	오무승(남·72세)	1989.6.29	"
14	제주시 영평동	김봉주(남·67세)	1986.8.7	"
15	구좌읍 한동리	오무승(남·72세)	1989.6.29	"
16	남원읍 남원리	오순녀(여·82세)	1987.1.14	"
17	안덕면 덕수리	양경생(여·78세)	1989.1.20	"
18	표선면 하천리	강진욱(남·78세)	1990.2.14	"
19	성산읍 온평리	강옥생(여·72세)	1990.2.16	"
20	조천읍 함덕리	박인주(남·70세)	1986.8.21	"

<자료1>

산천초록	다버리고
앵헤야	일하로다
인상주검이	원팔이나
앵헤야	일하로다
살맛을적원	친구도 많고
앵헤야	일하로다
북당산천갈적의는 나혼자 뿐이로다	
앵헤야	일하로다
언제가면	언제오나
앵헤야	일하로다
흔번가면	못을 질어여
앵헤야	일하로다
여러분네	잘덜사소
앵헤야	일하로다
오늘부면	하직일세
앵헤야	일하로다

<자료2>

우우... 호...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간다간다	나는가네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모든질로	나는간다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이제가면	언제오나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다시못을	이질이타
아아어형이야	어럴로세

인생철십	고령이란
아아어형이야	어릴로세
고인이먼저	일렀더라
아아어형이야	어릴로세
나간다고	서러워마세
아아어형이야	어릴로세
살아졌다고	좋아마세
아아어형이야	어릴로세
부당산천	이질이라
아아어형이야	어릴로세

〔자료3〕

어허허어	어허허허
어허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나는이희상버리고간다
어허야	얼화로다
나는갈지라도	너희들랑있고자거라
어허야	얼화로다
오늘에내가갓다가	맹년이구늘돌아오면또다시돌아올수잇것나
어허야	얼화로다
오늘에나는가면	극락세계로간다
어허야	얼화로다
나자식덜나친족	잘자라고잇거라
어허야	얼화로다
내가간다해도	섭섭이라는말어
어허야	얼화로다
칠팔십이건너간	내가갈적에
어허야	얼화로다
간다는이세상이야	얼마나좋것지
어허야	얼화로다
오늘가면 수만면	살곳으로나는간다
어허야	얼화로다

<자료4>

이제가면	언제오나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명스십리	해당화는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멩년춘삼월되면	있도피고꽃도핀다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우리인심	흔번가면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언제또다시	돌아오고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일가친척	이별하고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자녀손자	다버려두고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북망산천으로	나돌아가네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인제가머는	언제오료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인생칠십	고령이라더니
허영우허야	얼화로세
오늘이	오늘날에칠십인가

<자료5>

으어허-어	어허어-
으어허-어	어허어-
명스십리	해당화야
으어허-어	어허어-
꽃진다고	설위다라
으어허-어	어허어-
멩년삼월	봄이오면

으어허-어	어허어-
너는다시	피련마는
으어허-어	어허어-
우리인심	흔 번가면
으어허-어	어허어-
다시오기	어려워라
으어허-어	어허어-
북망산에	들어갈때
으어허-어	어허어-
어쩔할꼬	심상흠을
으어허-어	어허어-
한정엇는	질이로다
으어허-어	어허어-
이세상을	하직하니
으어허-어	어허어-
언제다시	돌아오나
으어허-어	어허어-
처자권속	손을잡고
으어허-어	어허어-
만단설화	다못하여
으어허-어	어허어-
정신초려	슬퍼보니
으어허-어	어허어-
약탕관을	버려놓고
으어허-어	어허어-
지성구효	극진흔들
으어허-어	어허어-
죽은목숨	살리소냐
으어허-어	어허어-
옛늑신네	말들으니
으어허-어	어허어-

저심 짚어	벌타 더니
으어허-어	어허어-
오늘 내게	당혹 오니
대문박귀	저심 이라
으어허-어	어허어-
친구 벗어	많나 혼들
으어허-어	어허어-
어느누가	동행 혹며
으어허-어	어허어-
일가 친척	많나 혼들
으어허-어	어허어-
어느누가	대신 가나
으어허-어	어허어-
구상 당에	하직 혹고
으어허-어	어허어-
일직 사자	손을 끌고
으어허-어	어허어-
월직 가자	등을 밀어
으어허-어	어허어-
천방 지방	몰아 갈때
으어허-어	어허어-
노픈 데는	놋아 지고
으어허-어	어허어-
놋은 데는	노파 진다
으어허-어	어허어-
악에 악씨	모은 재산
으어허-어	어허어-
먹고 가며	쓰고 가나
으어허-어	어허어-
여보시오	사자 님네
으어허-어	어허어-

내말잠깐	들어주소
으어허-어	어허어-
시장훈대	점심하고
으어허-어	어허어-
신발이나	고쳐신고
으어허-어	어허어-
쉬어가자	애걸흔들
으어허-어	어허어-
들은체도	아니하고
으어허-어	어허어-
새물치로	등을치며
으어허-어	어허어-
어서가자	바삐가자
으어허-어	어허어-
어령저령	여러날에
으어허-어	어허어-
저심문을	다달으니
으어허-어	어허어-
우두나찰	마두나찰
으어허-어	어허어-
소래치며	달려들어
으어허-어	어허어-
인정달라	하는구나
으어허-어	어허어-
인정쓸돈	반푼엇어
으어허-어	어허어-
배고프며	모은재산
으어허-어	어허어-
인정반푼	써볼텐가
으어허-어	어허어-
저심으로	옮겨갈까

으어허-어	어허어-
한전불러	가져올까
으어허-어	어허어-
이복벗어	인정쓰며
으어허-어	어허어-
열두대문	들어가니
으어허-어	어허어-
무섭기도	한이엇고
으어허-어	어허어-
두렵기도	측량엇다
으어허-어	어허어-
대령호고	기다리니
으어허-어	어허어-
속사정이	분부듣고
으어허-어	어허어-
남녀죄인	등대홀제
으어허-어	어허어-
정신초려	슬펴보니
으어허-어	어허어-
열시왕이	좌개호고
으어허-어	어허어-
재판관은	문서잡고
으어허-어	어허어-
남녀죄인	잡아드려
으어허-어	어허어-
대김받고	봉추홀제
으어허-어	어허어-
우두마두	나찰들은
으어허-어	어허어-
형벌기구	차려노며
으어허-어	어허어-

대상호령	기러하니
으어허-어	어허어-
엄숙하기	측량엇다
으어허-어	어허어-
이놈들아	들어보라
으어허-어	어허어-
선심하라	발원시켜
으어허-어	어허어-
인간에	보냈더니
으어허-어	어허어-
무신선심	헛엇느냐
으어허-어	어허어-
바른대로	다일러라
으어허-어	어허어-

<자료6>

빈객삼천	맹신군도
앵헤야	방화로구나
앵헤야	방화로구나
앵헤야	방화로구나
죽어지니	소용엇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백자천손	곽분향도
앵헤야	방화로구나
죽어지니	그뿐이라
앵헤야	방화로구나
영웅인들	늑지않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호걸인들	안죽을까
앵헤야	방화로구나
단고영웅	진시황도

앵헤야	방화로구나
여산에	초총뒀어잇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친하경의	편작이도
앵헤야	방화로구나
약명물라	죽었으며
앵헤야	방화로구나
육국유세	소진장이
앵헤야	방화로구나
열국제왕	다달래어도
앵헤야	방화로구나
염라대왕	못달래어
앵헤야	방화로구나
홀수읍이	죽엇거늘
앵헤야	방화로구나
추로ᄃ튼	우리인심
앵헤야	방화로구나
아차흔번	실수뒀면
앵헤야	방화로구나
소방상위에	뚜렷이놓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황천길을	춧아가니
앵헤야	방화로구나
그아니	불쌈ᄃ냐
앵헤야	방화로구나

<자료7>

슬프고도	슬프도다
앵헤야	얼화로다
어찌ᄃ여	슬프던고
앵헤야	얼화로다

이세월이	건고할줄
앵헤야	얼화로다
태산곶이	믿엇더니
앵헤야	얼화로다
백년광음	다못가서
앵헤야	얼화로다
백발뒀니	슬프구나
앵헤야	얼화로다
뜻없이	가는세월
앵헤야	얼화로다
넋들아니	늡을소냐
앵헤야	얼화로다
젊은청춘	늡어가니
앵헤야	얼화로다
한숨나고	슬프구나
앵헤야	얼화로다
소진장을	불러다가
앵헤야	얼화로다
늡지말자고	애월를홀까
앵헤야	얼화로다

<자료8>

어허랑창	어허로세
노새놀아	젊어놀아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세상의	억조창생
어허랑창	어허로세
도령전을	들어보소
어허랑창	어허로세
무극유극	조판후에
어허랑창	어허로세

지성이후	인심이라
어허랑창	어허로세
음양조물	조화로써
어허랑창	어허로세
우리선조	탄생호야
어허랑창	어허로세
우리부모	나섯구나
어허랑창	어허로세
아버님의	뺨를타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어머님의	슬을받아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이	태어났네
어허랑창	어허로세
애지중지	기른공덕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님의	공덕이다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공을	가플라면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명령	순종호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마음	편케호여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님께	효도호자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세상에	불효중생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모공을	모르고서
어허랑창	어허로세
호색잡기	허욕탐식

어허랑창	어허로세
치신치수	ㅎ고보면
어허랑창	어허로세
부부간에	성제간의
어허랑창	어허로세
불순ㅎ고	친척간의
어허랑창	어허로세
의리끊고	악의악행
어허랑창	어허로세
탐심ㅎ면	천금ㄹ튼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의	천병만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쇠신ㅎ여	요지부동
어허랑창	어허로세
천금인들	당할손가
어허랑창	어허로세
만금인들	당할손가
어허랑창	어허로세
천만금도	쓸데엇고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내몸이	귀중꾸다
어허랑창	어허로세
이때홀연	생각ㅎ니
어허랑창	어허로세
후회ㅎ고	후회ㅎ며
어허랑창	어허로세
과거사를	생각ㅎ니
어허랑창	어허로세
꿈길ㄹ튼	이내ㄹ음
어허랑창	어허로세

<자료9>

어허낭창	어허로세
노새놀아	젊어놀아
늪어지면	못노나니
어허-	시경이요
어허낭창	어허로세
달도차면	기우나니
어허낭창	어허로세
인생일장	춘몽인데
어허낭창	어허로세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어허낭창	어허로세
가자가자	어서가자
어허낭창	어허로세
흔번가면	못오는길을
어허낭창	어허로세
이내신세	허망하고
어허낭창	어허로세
초로인생이	분명하다
어허낭창	어허로세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허낭창	어허로세
원통하고	원통하다
어허낭창	어허로세
아버님전의	백를빌고
어허낭창	어허로세

어머님전의 손을 빌어
어허낭창 어허로세

<자료10>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가자가자	이서가자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산에올라	옥을캐니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이름이좋아서	산옥이나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대문백기	저승이라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저승길이	멀다해도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가는길이	세월이라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이세상에	탄생훈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부모의은공	값자하니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갈길엇이	막연하다
어허렁창	지화로구나

<자료11>

에헤노아	에헤노아
하향낙일	수천리는

에헤노아	에헤노아
소통국의	도자이별
에헤노아	에헤노아
정객관상	노이충은
에헤노아	에헤노아
오희월녀	부부이별
에헤노아	에헤노아
편삽수요	소인이는
에헤노아	에헤노아
음산에	형제이별
에헤노아	에헤노아
명사십리	해당화야
에헤노아	에헤노아
꽃이젓다고	서러워달고
에헤노아	에헤노아
맹년춘삼월	돌아오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너는또다시	안피는가
에헤노아	에헤노아
인생이란	돌아가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두번다시	볼길엇꼬
에헤노아	에헤노아
맹년춘삼월	돌아오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너는또다시	안피는가
에헤노아	에헤노아

아차실수	돌아가면
에헤노아	에헤노아
두번다시	못오는데
에헤노아	에헤노아
살아생전	다늬기전의
에헤노아	에헤노아
잔도들고	놀아보세
에헤노아	에헤노아

<자료12>

어허허허	어허어허
오늘날씨도	꽤칭긋다
어허허허	어허어허
우리모을	모든사람덜아
어허허허	어허어허
인생하직긋여	떠나는님을
어허허허	어허어허
정성다긋여	보내드립시다
어허허허	어허어허
살았을적의	우리들위해
어허허허	어허어허
얼마나많이	수고긋였나
어허허허	어허어허
이렇게빨리	이별홀줄이면
어허허허	어허어허
술이나많이	먹어보컬
어허허허	어허어허

아버님잃어	우는자식들아
어허허허	어허어허
우지마라	우지마라
어허허허	어허어허
우리모두힘모아	사려주마걱정마라
어허허허	어허어허
아덜똥걱정말고	편히가십시오
어허허허	어허어허
저승가도	우리모을생각하여
어허허허	어허어허
우리덜앞질	다짜주십시오

<자료13>

응—	허—	응—	응—	
응—	응—	응응—	응—	응—
응—	응응—	응—	허응—	

<자료14>

어화능창	얼화로다
가네가네	나는가네
어화능창	얼화로다
저승길이	덜다더니
어화능창	얼화로다
창문안이	이승이요
어화능창	얼화로다
창문박귀	저승일세
어화능창	얼화로다

입던옷을	다벗어두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신던신발	다벗어두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다덜 많다	많다해도
어화능창	얼화로다
창문박괴	극락이니
어화능창	얼화로다
나갈질은	천리로구나
어화능창	얼화로다
고사리단풍	좋은질로
어화능창	얼화로다
만섬곡석은	널어진땅에
어화능창	얼화로다
백호청룡이	들더시니
어화능창	얼화로다
백호에는	아덜손이요
어화능창	얼화로다
청룡에는	뽇즈손이요
어화능창	얼화로다
저산에도	풀앞에도
어화능창	얼화로다
봄이흔때	돌아오면
어화능창	얼화로다
너는흔번	피지마는
어화능창	얼화로다
우리일생	흔번가면

어화능창	얼화로다
따시오기	만무로구나
어화능창	얼화로다
산천초목을	다버리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인생주검이	웬말이나
어화능창	얼화로다
짧은세상	살다그네
어화능창	얼화로다
극락세계가	웬말이나
어화능창	얼화로다
부모형제	영이별하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산천벗님네	하직을하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산천극락이	웬말이나
어화능창	얼화로다
인제가면	언제나올고
어화능창	얼화로다
한번가면은	못올길인가
어화능창	얼화로다
우리벗님네	잘덜잇소
어화능창	얼화로다
북망산천	멀다더니
어화능창	얼화로다
저기여산이	북망이라
어화능창	얼화로다

저랑한건은 인생일세
어화능창 얼화로다

<자료15>

행혜야 얼화로다
일락서산 해는지고
행혜야 얼화로다
월출동경 달이솟나
행혜야 얼화로다
어허— 허사로다
행혜야 얼화로다
놀아놀아 짚어놀아
행혜야 얼화로다
늡어지면은 못노나니
행혜야 얼화로다
오동추야 돌이등실떠
행혜야 얼화로다
임이야 생각이절로난다
행혜야 얼화로다
얼싸종다 방화로다
행혜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북망산에
행혜야 얼화로다
육림우박이 어데더냐
행혜야 얼화로다
인생일생은 춘몽인데
행혜야 얼화로다

아무나갈질어니	어서가자
헝헤야	얼화로다
저싱질이덜다해도	대문박괴저싱질이야
헝헤야	얼화로다

<자료16>

허영창	얼화로구나
에헤야	얼화로다
오늘가면	언제오나
허영창	얼화로구나
천년만년	살을집으로
허영창	얼화로구나
간가간다	나는간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에헤야	얼화로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이제가면	언제나오나
허영창	얼화로구나
오던말이나	일러주소
허영창	얼화로구나
아까운처즈식덜	영버려두고
허영창	얼화로구나
간다는말이	웬말이던고
허영창	얼화로구나
북망산천아	말물어보세
허영창	얼화로구나
엄허야	얼화로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웨왔던고 웨왔더나 단 팔십뫼살길
 허영창 얼화로구나
 아이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어허능창 얼화로세
 허영창 얼화로구나
 오늘저싱가면 언제나다시오나
 허영창 얼화로구나
 아까운부모형제 처사식을두고
 허영창 얼화로구나
 천년말년 살의되로
 허영창 얼화로구나
 나는가는구나 마즈막질로
 허영창 얼화로구나
 어허우술집의갈적의 친구도많더라만
 허영창 얼화로구나
 저싱질로갈라하니 내혼자뿐이여
 허영창 얼화로구나
 아이구씨구— 서럽더타
 허영창 얼화로구나
 오늘가면 마지막질우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동네어르신님덜 안녕히계십서
 허영창 얼화로구나
 간다가노라 나혼자저싱승질간다
 허영창 얼화로구나

<자료17>

영혜야	영혜야
영혜야	영혜야
인제가면	언제오노
영혜야	영혜야
어린자식	작별하고
영혜야	영혜야
북망산천이	웬달이나
영혜야	영혜야
명스십리	해당화야
영혜야	영혜야
너는따시	피련마는
영혜야	영혜야
우리인싱	훈번가면
영혜야	영혜야
언제다시	돌아올고
영혜야	영혜야
저성질은	약한질인데
영혜야	영혜야
훈번가면	못오는질
영혜야	영혜야

<자료18>

영혜야	방화로구나
인생백년이	방화로구나
영혜야	방화로구나
인생백년이	여주마로구나

앵헤야	방화로구나
아니놀구서	무엇을하나
앵헤야	방화로구나
이팔청춘	소년덜아
앵헤야	방화로구나
백발보구서	웃지나말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나도어제	청춘이로구나
앵헤야	방화로구나
오널날은	백발이로다
앵헤야	방화로구나
무정세월	흘러나가니
앵헤야	방화로구나
너는매일야	젊을소냐
앵헤야	방화로구나
맹사십리	해당화야
앵헤야	방화로구나
꽃이진다고	서러워마소
앵헤야	방화로구나
맹년이철	춘삼월오면
앵헤야	방화로구나
또다시한번	피련마는
앵헤야	방화로구나
우리인생	흔번가면
앵헤야	방화로구나
다시오기는	영어렵느니
앵헤야	방화로구나

슬은씩어서	진토가뵈고
앵헤야	방화로구나
빼는씩어서	황토가뵈니
앵헤야	방화로구나
우리인생	불쌍하도다
앵헤야	방화로구나
우리ㄱ튼	인생질이
앵헤야	방화로구나
허망하고	꿈결곤다
앵헤야	방화로구나

<자료19>

쫓른세상	살다가네
어허엉창	얼화로다
극락세계가	웬말이나
어허엉창	얼화로다
부모동생	영이별하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일가방상	영이별하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산천벗님네	다이별하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산천극락이	웬말이나
어허엉창	얼화로다
술집의갈적의	친구도많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북망산천갈저의	나흔자뿐이라

어허엉창	얼화로다
인제가면	언제올까
어허엉창	얼화로다
흔번가면	못올질인가
어허엉창	얼화로다
우리벗님네	잘덜잇소
어허엉창	얼화로다
오늘보민	하직일세
어허엉창	얼화로다
양단어깨에	수문장결엉
어허엉창	얼화로다
북망산천	멀다더니
어허엉창	얼화로다
저건넌한밭이	북망이로구나
어허엉창	얼화로다
나살아놓아라	쉬어나가자
어허엉창	얼화로다
극락세계로	어서로가자
어허엉창	얼화로다
여기동방	살펴보니
어허엉창	얼화로다
동방새별이	둥글둥글
어허엉창	얼화로다
남방쪽을	살펴보니
어허엉창	얼화로다
(청취불능)	둥글둥글
어허엉창	얼화로다

저복방을	살펴보니
어허엉창	얼화로다
북두칠성	걸러있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처탕한것	인생의려로
어허엉창	얼화로다
사토로	집을짓고
어허엉창	얼화로다
봉분으로	집을삼아
어허엉창	얼화로다
자손이	끓어안자
어허엉창	얼화로다
통곡을	흐고보니
어허엉창	얼화로다
어허방창	얼화로다
어허엉창	얼화로다
죽은사람이	먹을줄아느냐
어허엉창	얼화로다
공수레에	공수거라
어허엉창	얼화로다
이것이모두다	인생인가하노라
어허엉창	얼화로다

<자료20>

앵헤야	얼화로다
앵헤야	얼화로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엥헤야	얼화로다
요보시오	시주님네
엥헤야	얼화로다
이내달을	들어보소
엥헤야	얼화로다
이세상에	나온사람
엥헤야	얼화로다
누구덕으로	나왔는가
엥헤야	얼화로다
석가여래	공덕으로
엥헤야	얼화로다
아바님전의	뼈를빌어
엥헤야	얼화로다
어머님전의	슬을빌어
엥헤야	얼화로다
철성님전의	멩을빌어
엥헤야	얼화로다
이내몸이	탄생하니
엥헤야	얼화로다
어려울뎌	철을몰라
엥헤야	얼화로다
부모은공	아를손가
엥헤야	얼화로다
이삼십은	당혹여도
엥헤야	얼화로다
부모은공	못값아
엥헤야	얼화로다

어이엇고

애담구나

엥헤야

얼화로다